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September No.116

Contents

시황 및 추천펀드

- CIO 칼럼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CIO 칼럼

KOSPI 8,000! 이제 다 왔나요?

7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와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AI 투자가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조정을 AI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끝나는 신호라기 보다는, 빠르게 상승했던 주가가 자금조달 비용과 기업 실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은 AI 자체의 성장 둔화보다는 여러 금융시장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쏠림이 상당히 심했던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상승했고,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지출을 위해 부채와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 금융기관들과 손잡고 AI 인프라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AI가 정말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기업과 데이터센터 사업자 사이에서 투자와 매출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순환적 금융’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의 조정과 기술 발전의 정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AI의 기술 발전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AI 서비스 기업들의 실제 실적입니다. 최근 주요 빅테크와 메모리 기업의 실적을 보면 AI에 대한 수요가 꺾였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 Google Cloud는 82%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매출이 18% 증가했고, Azure의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마존도 2분기 매출이 20%, AWS 매출이 37% 성장했습니다. 특히 AWS의 AI 관련 사업 연간 매출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AI가 실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약 1,500억 달러 수준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출이 향후 몇 년 내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업의 실적과 AI 인프라 수요까지 함께 꺾인 것은 아닙니다.

셋째, 엔비디아가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해 AI 컴퓨팅 인프라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해 AI 컴퓨팅 인프라에 5,000억 달러 이상의 제3자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투자를 단순히 빅테크 기업의 현금흐름만으로 감당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AI 데이터센터와 컴퓨팅을 하나의 장기 투자자산으로 금융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에 필요한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중국의 저가 오픈웨이트 모델 확산으로 AI 추론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면 AI 인프라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AI 투자 사이클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한국 주식시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삼성전자는 26년 주주환원 규모를 약 90~110조 원으로 결정했고,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5년~27년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실적과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주주환원까지 개선되고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만으로 장기적인 투자 판단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초기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선행된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기업과 개인의 업무를 실제로 대신하는 AI Agent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AI Agent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박진호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전망

8월 국내 증시는 지난 7월 시장을 짓누르던 최악의 Sell-off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의 여진이 여전히 잔존하는 가운데, 지수의 추세적 상승보다는 개별 기업의 모멘텀과 실적 이슈에 따라 수급이 이동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에 민감한 Tech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관련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NVIDIA와 Broadcom 등 핵심 벤더들의 지급보증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조달 비용 증가와 신용경색 우려가 맞물리면서 테크 업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장기적인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증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는 '글로벌 장기국채 금리의 안정'과 'AI 펀더멘털의 재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 IPO가 예정된 Anthropic의 Roadshow 등을 통해 확인될 ARR이나 수익화 관련 단서들이 테크 섹터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금리 안정을 위한 미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 공조 여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재무부와 연준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수단에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거래액/본주 거래액



* 출처: Quantiwise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업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재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1.55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0.62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1.930%
(집합투자업자 0.90%, 판매회사 1.000%,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0%),
설정 1년 미만 상품으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미기재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2(3)영업일 적용, 제4(4)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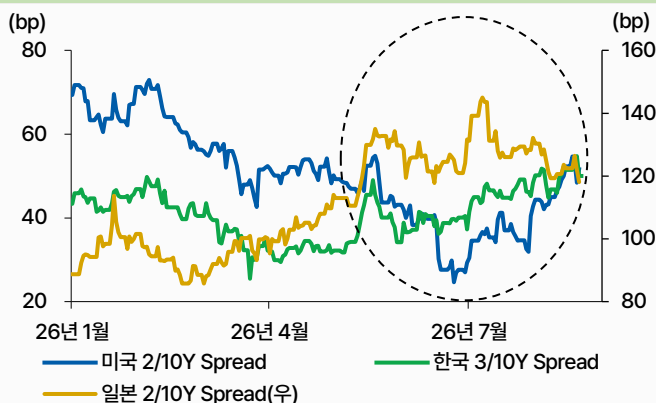
8월 국내 국채금리는 월초 물가 및 유가 안정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8월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와 대외금리 상승, 장기물 수급 부담 등으로 반등했습니다. 중순 이후에는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기대에 따라 장기금리가 일부 하락했으나 강세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8/20일 기준, 국고채 5년물 전월 말 대비 +5.0bp)

9월 국채 금리는 8월 금통위 결과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재료를 소화하는 가운데, 9월 FOMC와 유가 흐름에 주목하며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8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경우 연속 인상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면서 단기금리의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속 인상이 단행될 경우 이번 인상의 선제적 성격이 부각되며 향후 인상 속도와 최종금리에 대한 기대가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최근 고용 및 소비지표 둔화로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로 인상 소수의견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부담에 따른 텀 프리미엄 상승은 장기금리 하락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월말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세수 전망과 적자국채 순증 규모가 중요합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세수 개선으로 국고채 순발행이 축소될 경우 수급 우려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가 완화될 경우 단기금리의 하락 여지가 확대되는 반면, 장기금리는 대외금리와 국채 공급 부담으로 하락 폭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세 동조화



* 출처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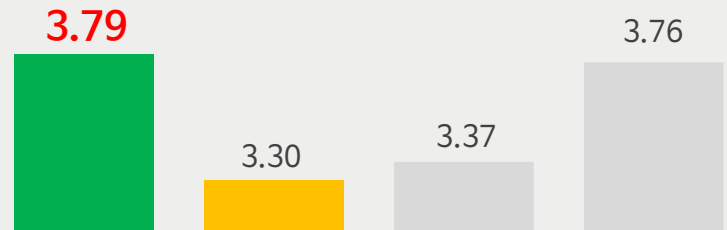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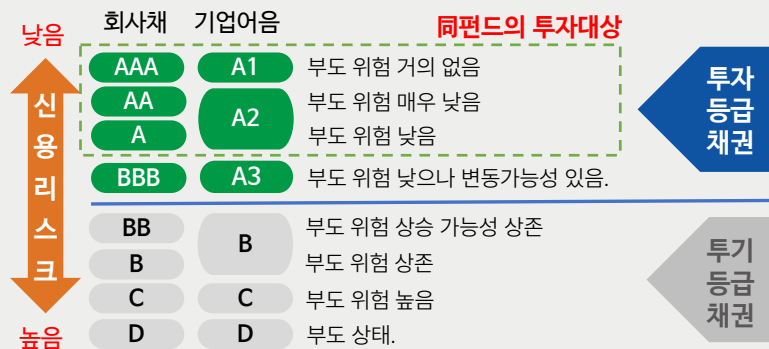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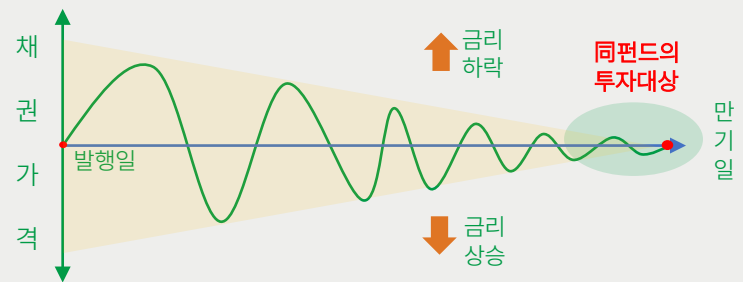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7월 31일 기준)

-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합성총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준 - 연0.3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2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기준 - 연0.4039%
(집합투자업자 0.075%, 판매회사 0.30%,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 기타비용 0.0089%), 직전 회계 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36% 발생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류형 펀드의 경우, 중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3(4)영업일 적용, 제3(4)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8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월초부터 중반까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장기금리 상승과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하락하며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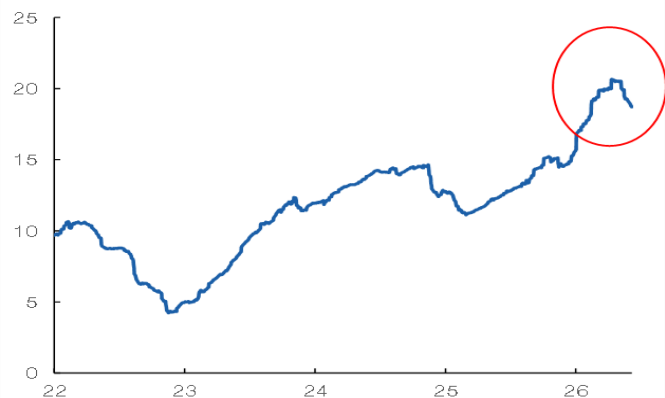
7월 반도체 기업 중심의 급락세를 불러왔던 Situational Awareness 펀드 청산이 마무리되면서, 급락했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월초 큰 폭의 단기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60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유가가 재차 상승했습니다. 또한 4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로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는 아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장기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 위기가 심화된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둔화되며 9월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고금리 지속 또는 금등 여부와 인플레이션 추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및 AI 관련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PS Growth 성장률의 둔화: 향후 EPS 예상치 상향 여부가 중요

(%, NTM EPS Growth)



* 출처: Factset, NH-Amundi자산운용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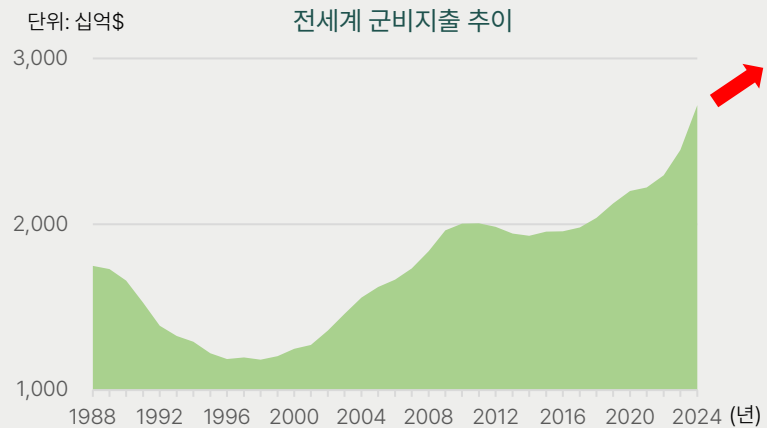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인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합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53%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391%),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69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235%
(집합투자업자 0.80%, 판매회사 0.70%, 신탁업자 0.06%, 일반사무관리 0.02%, 모펀드 비용 0.0413%),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3743%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발생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4(5)영업일 기준가, 제8(9)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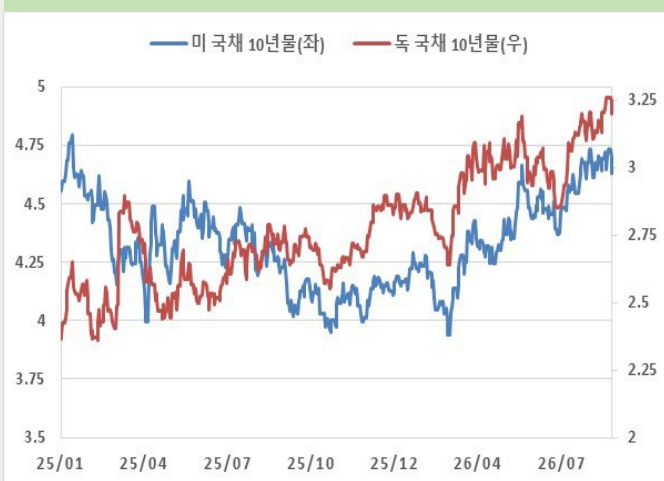
시장 전망

8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7월 초 미국-이란 휴전 MOU가 결렬된 이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7월 말 FOMC에서 Fed는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3명의 의원이 금리 인상에 투표하였으며 시장에서는 Fed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미국의 높은 재정적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향후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장기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후 베센트 장관의 장기금리 안정을 위한 국채 바이백 등 정책 대응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미국-이란 간 휴전 가능성이 재논의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미 10년물 -10bp, 독 10년물 -1bp)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이란이 종전 협상에 임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러-우 전쟁 당시와 같이 유가가 점차 안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9월에 발표될 미국 CPI가 높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채권 자산에 대한 매수를 권고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펀드입니다. 중기물 중심의 듀레이션을 보유한 동 펀드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한 캐리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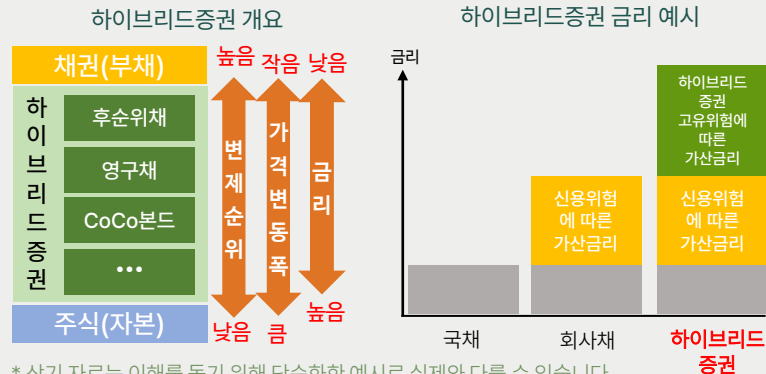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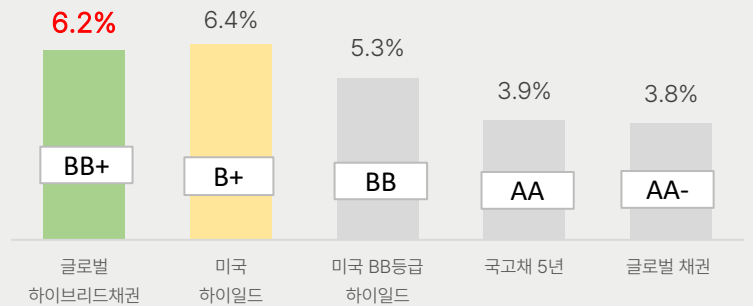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 2026년 5월 31일 기준 (B+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59% 달러/원 -0.91%) 수치)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성총보수 · 비용(연)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투자신탁(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422%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72%,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 이내 발생 가능

글로벌 하이브리드채권 증권투자신탁(UH)
수수료 선취-오프라인(A) 기준 - 연1.6365%
(집합투자업자 0.40%, 판매회사 0.5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15%, 모펀드 비용 0.69%), 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0% 발생, 선취판매수수료 납입 금액의 0.8% 이내 발생 가능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4(5)영업일 기준가, 제8(9)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와 자료 내 포함된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 종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